

르네상스와 종교 개혁



“복음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전이 보급되고 글을 배워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. 본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되어 있었는데, 유럽 전역의 일반인들은 이 두 언어를 알지 못했습니다. 그 후, 구주께서 돌아가시고 약 400년 후에 제롬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. 그렇지만 경전은 여전히 널리 통용되지 못했습니다. . . .

. . . 그러다가 성신의 영향력을 통해 배움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. 르네상스, 즉 ‘재탄생’을 뜻하는 문예 부흥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. 1300년대 말에 존 위클리프라는 한 신부가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. . . .

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번역하도록 영감을 받았고,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출판할 방안을 예비하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. 1455년경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활판 인쇄술을 발명했고, 성경은 그가 인쇄했던 최초의 책 중 하나였습니다. 처음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에 많은 경전을 인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. . . .

. . . 1500년대 초, 윌리엄 틴들은 옥스포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. . . . 틴들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으며, 그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도 직접 그 말씀을 흡족히 취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.

이 무렵, 독일의 사제이자 교수인 마틴 루터는 당시의 교회에서 잘못된 점 95가지를 찾아내고, 대담하게 그 내용을 편지로 써서 자신의 상급자에게 보냈습니다. 스위스에서는 울리히 츠빙글리가 67개 개혁 조항들을 출판물로 만들었습니다. 스위스의 장 칼뱅,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,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이러한 노력에 힘을 보탰습니다. 종교 개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.

한편, 윌리엄 틴들은 라틴어에서 번역된 위클리프역 영어 성경보다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직접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, 읽기에도 편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음을 얻은 틴들은 신약전서와 구약전서의 일부를 번역했습니다. 그의 친구들은 이 일 때문에 살해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으나 틴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. 언젠가 학식 있는 사람과 논쟁하던 중에 틴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‘하나님께서 나를 몇 년 더 살게 하신다면, 나는 들판에서 밭을 가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도록 할 것이오.’[quoted in S. Michael Wilcox, *Fire in the Bones: William Tyndale—Martyr, Father of the English Bible* (2004), 47]

. . . 나라 안에 분열이 있음을 인식한 영국의 왕 제임스 일세는 공인된 새로운 번역 성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. 틴들이 번역한 신약전서의 80%와 상당 부분의 구약전서가 . . . 킹 제임스 역 성경에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얼마 후, 이 킹 제임스 역 성경은 신대륙에 전해졌고, 14세의 조셉 스미스라는 시골 소년이 이를 읽게 되었습니다.”(로버트 디 헤일즈, “회복과 재림을 위한 준비: ‘내 손이 네 위에 있으리라’”, 『리아호나』, 2005년 11월호, 89~90쪽)

